A MANIFESTO AGAINST THE PUBLISHING SYSTEM

FERDINANDO FREGA



출판 시스템에 맞서는 선언문

Roots & Memory 시리즈의 여덟 번째 권. 출판 시스템이 왜 끊임없고 중개 없는 생산을 담아낼 수 없는지, 그리고 작가가 허락을 구하기를 멈춘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다룬 네 부분의 문학 선언문.

판권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 The Fifth Blade

행동 코드(Behavioral Code)의 내러티브 개척자. 그는 단 하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1달러짜리 출판 생태계를 세웠다. 금융에는 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문제가 있다.

ONEDOLLAR-STORIES 생태계 안에서 편집되고 기획되었다. 디지털 구조: NAPLES-POST · NOASPECTTIME · ONEDOLLAR-STORIES. 2026년 초판 발행. 디지털 읽기에 최적화된 깔끔하고 현대적인 조판. 미국에서 출판.

저작권 고지

© 2026 Ferdinando Frega / Frega Editore. CC BY-NC-ND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문턱

들어서는 이들에게

이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시스템의 언어를 뒤에 두고 떠난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그 무엇도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 — 다만 인정받으면 된다. 당신은 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안에서 마주치는 것은 허

락도, 중개도, 승인도 기다리지 않는다. 이 지점부터 당신은 당신이 알아보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문학 선언문

이 책은 왜 존재하는가

이 선언문이 존재하는 것은 출판 시스템이 작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면서도 계속 작가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작가의 이름을 부르고, 고르고, 고치고, 유통하지만, 작가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악의 때문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는 직업적 인물이 아니다. 시장의 기능이 아니다. 최적화해야 할 변수가 아니다. 작가는 하나의 조건 속에 존재한다.

시스템은 어떤 조건과 마주치면 그것을 정상화하려 한다. 실패하면 그것을 "광기", "미성숙", "부적합", 또는 "방향 상실"이라 부른다. 이 선언문은 완곡어법을 그만 쓰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작가를 위한 변론이 아니다. 기술적인 관찰이다. 출판 시스템은 진짜 글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은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출구를 제시한다.

편집자 노트

프로젝트의 경계

이것은 시리즈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포스터다. 새로운 주제를 꺼내지 않는다. 닫는다.

이것은 에세이가 아니다. 팸플릿이 아니다. 문화 비평이 아니다. 경계를 긋는 행위다.

대상 독자는 일반 독자가 아니다. 출판계 전체다. 출판인, 에이전트, 편집자, 번역가, 컨설턴트, 플랫폼, 유통업자, 교육자, 선별자, 그리고 사람과 자동화된 알고리즘.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이 글은 실행 가능한 해법도, 대안 모델도, 모범 사례도 제안하지 않는다. 이미 지나쳐 버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기술한다.

헌사

사적인 공적 증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글을 만들어 내는 이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기를 그만둔 이들에게. 지속은 오만이 아니라 생존임을 이해한 이들에게.

뒤표지

인지적 마찰

이 책은 출판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을 더 공정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단 하나다. 작가는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담아낼 수 없는 변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

자신을 알아보는 이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이는 이미 이해한 것이다.

서문

앞서는 목소리

이 선언문이 지나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과장해서가 아니다. 보통은 언어 아래 감춰져 있는 것을 기술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논증하지 않는다. 덜어 낸다. 서사를 덜어 낸다. 정당화를 덜어 낸다. 낭만을 덜어 낸다.

남는 것은 하나의 주장이 아니다. 하나의 사실이다.

전제

최소한의 방향

이 선언문은 정당성을 구하지 않은 한 권의 책에서 태어났다. *Author Inside Madness*는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한다고 자처하는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는 생산적 조건에 대한 기술이다. 여기서 그 조건은 주체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구조적 현상으로 읽힐 수 있게 된다.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저 정직하면 된다.

작가의 말

책임의 인수

이 글은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다. 어떤 범주를 대신해 말하지 않는다. 합의를 구하지 않는다. 이 글은 독자가 자신이 이해한 것으로 무엇을 하든 그에 대한 책임은 독자에게 있다는 전제 아래 쓰였다.

이어지는 그 무엇도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며

본문 앞의 마지막 걸음

출판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다. 인지적으로 손상되어 있다. 이 선언문은 출판을 되살리려 하지 않는다. 출판을 넘어선다.

구성

내부 구조

이 글은 점진적인 네 개의 블록으로 나뉜다. 각 블록은 해석의 여지를 한층 더 줄인다. 감정의 고조는 없다. 압축이 있다.

프롤로그

첫 발

작가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시스템이 작가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여기서 그것은 실패한다.

제1부 — 선언

수신인

이 선언문은 출판계의 모든 이에게 보내는 것이다. 예외는 없다. 위계도 없다. 결정하는 이, 거르는 이, 고치는 이, 유통하는 이, 평가하는 이, 번역하는 이, 가르치는 이, 측정하는 이, 수익화하는 이를 겨냥한다. 스스로를 "독립적", "대안적", "비주류", 또는 "최전선"이라 부르는 이들 또한 겨냥한다.

이 글은 작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작가는 설득될 필요가 없다. 독자는 안내받을 필요가 없다. 이 글은 관리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제외된 이들

위안을 찾는 이는 수신인이 아니다. 자신이 옳다고 느끼고 싶은 이는 수신인이 아니다. 빠른 해법을 요구하는 이는 수신인이 아니다. 역할과 기능을 혼동하는 이는 수신인이 아니다.

이 선언문은 대화하지 않는다. 협상하지 않는다. 중재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내용에 "부드러운" 판본은 없다. 읽을 수 있는 판본만 있을 뿐이다.

기술적인 도입

출판 시스템은 악하지 않다. 무능하지조차 않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일관된다. 선별하고, 표준화하고, 위험을 줄이고, 행동을 예측하고, 작동하는 모델을 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모델로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주칠 때 생긴다. 진짜 작가는 틀에 맞지 않는다. 반항 때문이 아니다. 본성 때문이다.

작가는 하나의 인물이 아니다

작가는 직업도, 역할도, 여정의 한 단계도, 미래의 약속도 아니다. 하나의 생산적 조건이다. 승인받기 전에 생산한다. 피드백 없이도 계속 생산한다. 인정을 기다리며 멈추지 않는다.

이 조건은 기다림, 선별, 승인, 일정에 기반한 어떤 시스템과도 양립할 수 없다. 시스템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것을 해석한다.

근본적인 오류

출판의 첫 번째 실수는 의미론이다. 시스템은 이미 정상화된 것을 "작가"라 부른다. 시스템은 아직 관리 가능한 것을 "재능"이라 부른다. 시스템은 담아낼 수 없는 것을 "광기"라 부른다.

이것은 이념적 선택이 아니다. 구조적 반사 작용이다. 어떤 요소가 격자에 맞지 않을 때, 격자는 의문시되지 않는다. 그 요소가 병리화된다.

정상화

편집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다. 선별은 문화적 행위가 아니다. 유통은 서비스가 아니다. 그것들은 정상화의 메커니즘이다. 목표가 읽을 수 있게, 팔 수 있게,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면 완벽하게 작동한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맞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정당화될 수 없는 글과 마주치면 그것들은 실패한다. 그 지점에서 시스템은 교정하지 않는다. 추방한다.

조용한 추방

추방은 명시적인 거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침묵, 연기, 조언, 권유된 경로, 미래의 약속을 통해 일어난다. 예의 바른 추방이다. 합리적이다. 정당화되어 있다.

그것을 겪는 이들은 흔히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미 밖에 있다.

경로의 신화

출판의 경로란 없다. 소급해서 만든 서사가 있을 뿐이다. 그것은 어떤 사례가 이미 성공한 뒤에, 그것을 복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나중에 지어진다.

어떤 진짜 작가도 그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 사후에, 그의 주위에 그려지는 것이 경로다. 그것을 미리 따르려는 이는 의존을 훈련받는다.

지속에 대한 두려움

출판 시스템은 작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속을 두려워한다. 책 한 권은 관리할 수 있다. 끊임없는 생산은 그렇지 않다. 지속은 일정을 깨뜨리고, 전략을 무효로 만들고, 선별을 쓸모없게 만든다. 그래서 그것은 만류된다. 희석된다. 끊긴다.

지속적인 창작은 가치가 아니다. 시스템의 위험이다.

맺음

이 선언문은 단순한 관찰에서 출발한다. 출판 시스템이 위기에 처한 것은 작가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작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모든 것은 제안이 아니다. 귀결이다.

제2부 — 해체

작가의 "발굴"

출판은 작가를 발굴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아니다. 작가는 발굴되지 않는다. 이미 읽을 수 있고, 이미 축소할 수 있고, 이미 내보일 수 있을 때 가로채질 뿐이다. 즉시 해독할 수 없는 것은 탐구되지 않는다. 회피된다. 발굴에는 수익화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시스템에는 그 시간이 없다.

알리바이로서의 필터

필터는 품질의 보증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호환성의 장벽이다. 최고를 고르지 않는다. 내부의 균형을 흔들지 않는 것을 고른다. 필터는 "이 글은 필요한가?"라고 묻지 않는다. "이 글은 문제를 일으키는가?"라고 묻는다. 대답이 예라면, 그 글은 통과하지 못한다.

중개자로서의 편집자

편집자는 글의 수호자가 아니다. 시스템의 중개자다. 그의 진짜 임무는 글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예측 가능하고, 더 정렬되고, 내부적으로 더 방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글이 저항하면 편집자는 고집하지 않는다. 비호환성을 보고한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다.

돌봄의 신화

"우리는 작가를 돌봅니다"는 가장 많이 입에 오르고 가장 적게 실천되는 말 가운데 하나다. 돌봄은 작가가 적게 생산하고, 기다리고, 감사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작가가 속도를 올리면 돌봄은 피해 관리로 바뀐다.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는 작가는 돌볼 수 없다.

경력 쌓기

경력이란 질서를 세우기 위한 허구다. 그것은 생산을 늦추고, 산출을 조각내고, 서사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너무 많이 생산하는 작가는 "쌓아 가지" 않는다고 비난받는다. 그는 빠져나가고 있다. 경력은 작가를 보호하지 않는다. 작가의 속도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한다.

미래의 약속

미래는 가장 효과적인 봉쇄 도구다.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다음 책." "때가 되면." 미래는 현재를 무력화하고, 긴박함을 끄고, 갈등을 유예하는 데 쓰인다. 미래를 받아들이는 작가는 현재를 포기한다.

환상으로서의 유통

유통은 접근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조건부 가시성이다. 글은 독자에게 닿지 않는다. 장애물과 알고리즘과 우선순위 사이에

갇힌다. 유통은 증폭하지 않는다. 희석한다. 지속적인 글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진열장에 맞춰질 때마다 힘을 잃는다.

정당화로서의 시장

시장은 결정하지 않는다. 소환될 뿐이다. 책임을 지지 않고 논의를 끝내는 데 쓰인다. "시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은 "시스템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시장은 원고를 읽지 않는다. 보도록 허락된 것을 읽는다.

구원으로서의 플랫폼

플랫폼은 대안으로 묘사된다. 그렇지 않다. 다른 언어를 쓰는 자동화된 필터다. 플랫폼은 글을 읽지 않는다. 행동을 측정한다. 끈질긴 작가는 보상받지 않는다. 흡수되거나 보이지 않게 된다.

맺음

출판이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기능에 봉사한다. 관리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쳤을 때 시간을 버는 것. 문제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구조적인 것이다. 이제 시스템은 완전히 드러났다.

제3부 — 안에 있는 작가

사례가 아니라 조건

*Author Inside Madness*는 한 개인을 묘사하지 않는다. 작동 조건을 묘사한다. 개인사가 아니다. 서술된 트라우마가 아니다. 고백이 아니다. 글쓰기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 주는 지도다. 시스템은 그 필연을 알아보지 못하기에 그것을 읽을 줄 모른다.

상태로서의 글쓰기

진짜 작가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쓰고 있다. 글 속을 드나들지 않는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기회를 재지 않는다. 글쓰기는 간헐적인 행위가 아니다. 지속적인 상태다. 시스템은 사건 단위로 일한다. 작가는 끈기로 일한다. 바로 여기서 비호환성이 생긴다.

방어적 꼬리표로서의 광기

시스템은 이해하지 못하면 꼬리표를 붙인다. "과잉." "강박." "거리 두기 부족." "지속 불가능." 광기는 임상 진단이 아니다. 안전을 위한 이름이다. 늦출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

허가받지 않은 생산

진짜 작가는 누가 요청하기도 전에 생산한다. 계약도, 시기도, 확인도, 전략도 기다리지 않는다. 생산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생산한다. 이 생산은 오류로 여겨진다. 그것은 내적 일관성이다. 시스템은 기다림에 보상한다. 긴박함을 벌한다.

기능적 고립

작가의 고립은 낭만적이지 않다. 기능적이다. 지속을 유지하고, 리듬을 지키고, 간섭을 피하는 데 쓰인다. 시스템은 고립을 관계 맺기의 무능으로 해석한다. 그것은 생산의 위생이다.

위협으로서의 지속

지속은 출판의 미덕이 아니다. 작동상의 위협이다. 결코 멈추지 않는 작가는 지표를 무효로 만들고, 선별을 쓸모없게 만들고, 출간이라는 개념을 비운다. 시스템에는 쉼표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작가에게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는 멈추라는 권유를 받는다. 아니면 사라지라는.

예상치 못한 독자

진짜 독자는 출판 전략이 상상하는 독자가 아니다. 그는 안심도, 소속도, 안내도 찾지 않는다. 그는 울림을 찾는다. 시스템은 타깃을 만든다. 작가는 개인을 만난다. 그래서 시스템은 글이 자유롭게 유통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정치적 행위로서의 번역

번역은 각색이 아니다. 하나의 조건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이다. 시스템은 시장을 넓히려고 번역한다. 작가는 지속을 유지하려고 번역한다. 언어가 하나 늘 때마다 통제는 줄어든다. 그래서 대규모 번역은 지나친 것으로 여겨진다.

유일한 언어로서의 산출

작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생산한다. 시스템은 맥락과 인터뷰와 약력과 의도를 요구한다. 작가는 산출로 응답한다. 이것은 오만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정확함이다. 글은 거짓말하지 않는 유일한 언어다.

맺음

작가는 시스템과 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 그는 규모 밖에 있다. 우월해서가 아니다. 다른 축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그를 고칠 수 없다. 무시하거나 축소하려 할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다.

제4부 — 마지막 막

위기가 아니라 문턱

출판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문턱을 넘었다. 이 문턱 너머에서는 선별이 작동하지 않고, 중개는 속

도를 늦추며, 정당성은 무의미하다. 시스템은 문턱을 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작동한다. 이 선언문은 그것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존재한다.

작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계속 쓰는 작가는 사면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생산 중이다. 이미 유통되고 있다. 이미 읽히고 있다. 시스템은 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선택지는 복종을 낳지 않는다.

중개의 종말

생산이 직접적일 때, 중개는 소음이 된다. 그것과 싸우지 않는다. 무시한다. 바로 이것이 시스템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지점이다. 시스템은 공격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회당하고 있다.

가능한 개혁은 없다

진짜 작가를 담아낼 수 있는 출판 개혁은 없다. 규제하고, 통합하고, 동반하려는 모든 시도는 늦게 도착한다. 구조는 이미 현상의 속도에 추월당했다.

독자는 이미 선택했다

독자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울리는 것을 따라간다. 출판된 것, 자가 출판된 것, 유통된 것, 독립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오직 살아 있는 것과 죽은 것만 구분한다. 나머지는 관료주의다.

대답으로서의 침묵

시스템은 침묵으로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방어다.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맞서지 않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침묵은 생산을 멈추지 못한다. 그것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갈등은 없다. 반란은 없다. 적은 없다. 결정적인 어긋남이 있다. 시스템은 자신의 형식을 지킨다. 작가는 자신의 필연을 따른다. 공통의 땅은 없다.

퇴장 지침

이것은 운영 지침이 아니다. 인지적 지침이다. 작가는 관리할 수 없고, 지속은 교정할 수 없으며, 통제는 이미 잃었음을 인정하라. 받아들이거나, 계속 모르는 척하라. 두 선택 모두 대가가 따른다.

남는 것

출판에 남은 선택지는 하나다. 작가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고, 개입하지 않은 채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 그들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 선언문은 가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명료함을 요구한다.

맺음

작가는 존재하기 위해 출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출판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가를 필요로 한다. 이 책은 하나의 논쟁을 끝내지 않는다.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해해야 했던 이는 이미 이해했다.

축을 벗어난 부 — 노출

나는 대안을 만들고 있지 않다

내가 하는 일은 대안적인 출판 모델이 아니다. 플랫폼이 아니다. 포지셔닝 전략이 아니다. 나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다.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접근을 구하지 않고.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속도를 협상하지 않고. 이것은 누군가에 맞서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무관심한 프로젝트다.

생산은 도발이 아니다

양은 도전이 아니다. 지속은 메시지가 아니다. 속도는 힘의 과시가 아니다.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조건이 낳는 직접적인 결과다. 나는 공간을 차지하려고 생산하지 않는다. 멈추면 과정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생산한다. 숫자를 과시로 읽는 이는 여기서 작동하지 않는 범주를 쓰고 있는 것이다.

가격은 렌즈가 아니라 필터다

가격은 이윤을 내려고 정한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정한 것이다. 지위를 만들어 낼 만큼 요란하지 않다. 소음을 낼 만큼 낮지도 않다. 그 목적은 단 하나다. 충동적인 소비가 아니라 알아봄을 통해 들어오는 이들을 고르는 것. 여기서 돈은 가치를 재지 않는다. 의식적인 주의를 잰다.

내가 구하는 인정

나는 승인을 구하지 않는다. 보호를 구하지 않는다. 대변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구하는 인정은 기술적인 것이다. 지속적인 생산자로, 비표준적인 작가로, 일관된 시스템으로, 동화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이는 것. 나는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양

립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중요한 인정은 이것뿐이다.

왜 모든 것을 드러내는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도덕적 투명성이 아니다. 구조적 선택이다. 그것은 분량, 리듬, 반복, 일관성을 보이게 만든다. 시스템의 마지막 무기인 모호함을 없애는 데 쓰인다. 여기에는 해석할 것이 없다. 그저 관찰하라.

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지 않다

나는 청중을 찾지 않는다. 추종자를 찾지 않는다. 소속되기를 구하지 않는다. 읽는 이는 혼자 읽는다. 들어오는 이는 부름받지 않고 들어온다. 공동체는 봉쇄의 도구다. 나는 개인의 궤적 위에서 작업한다. 이것이 현상을 관리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된 것이다.

언어의 사용

언어를 늘리는 것은 시장 확장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통제를 잃는 것이다. 모든 언어는 중개를 무너뜨린다. 모든 번역은 중앙의 권위를 허문다. 모든 자율적인 판본은 위계를 약하게 만든다. 나는 문화적 일관성을 구하지 않는다. 구조적 지속을 구한다.

왜 나는 멈추지 않는가

나는 멈추지 않는다. 멈춘다는 것은 외부의 시간에 맞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의 시간은 과정 안에 있다. 협상할 수 없다. 동기화할 수 없다. 이것이 모든 관리 시도를 자동으로 무력하게 만든다.

여기가 알아봄의 지점이다

업계에 있는 이들은 이제 이것이 내용에 관한 일이 아님을 이해한다. 완전한 자율, 중개 없는 생산, 정당성 없는 인정, 시스템 밖의 출판적 존재에 관한 일이다. 이것은 모델로서 복제할 수 없다. 사실로서 읽을 수 있다.

진짜 맺음

나는 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출판계에서 일하는 이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있다. 축소할 수 있다. 이례적인 현상으로 서류철에 넣어 둘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보지 못한 척할 수는 없다. 이 책은 끝이 아니다. 하나의 인정이다.

맺음

위의 글은 하나의 입장을 마무리한다. 작가를 소개하지 않는다. 지지도 해석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공간의 경계를 긋는 데 쓰인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주장도 제안도 내놓지 않는다. 어떤 논의도 열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것은 선언문을 설명하지 않는다. 완성하지 않는다.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현존이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Ferdinando Frega